

제 56 강

하나님의 '의'(義), 은혜, 믿음, '의인'(義認)

■ 성경본문 로마서 1:1-16:27 ■

프렐류드(Prelude)



지중해 세계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 세계를 전도하는 동안 이방 나라 곳곳에 세운 교회들 앞으로 보낸 서신들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그

리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롬 1:10, 11, 15, 15:22, 24). 때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방문 계획 그리고 복음에 대해 미리 알려주려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자신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고백하고 변증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론'(基督論-Christology)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론'(恩寵論

-Grace)이 있으며, 인간의 '신앙'(信仰-faith)이 있고 '죄 없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의 '의인'(義認-Justification)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로
마서를 가장 명확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I. 주요 내용

1. 하나님의 ‘의’(義)(로마서 1:18-3:18)
2.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로마서 3:19-5:11)
3.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로마서 12:1-15:13)

II. 시대적 배경

1. 로마교회의 역사

“로마에 복음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전해졌으며, 로마 교회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설립 되었는가?”라는 문제에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회개한 로마인 또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회개한 로마인들이 로마에 돌아와(행 2:10 참조) 주후 40-50년경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후 42년경 베드로가 전도한 결실이 로마교회라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설은 확실한 역사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기에 앞서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분명합니다.

최초의 신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나그네들(행 2:10)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귀국한 후 예수를 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경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된 것으로 보아 주후 50년경 로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행 18:2).

2. 로마서의 저자, 연대 및 장소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0-15절과 15장 22-29절과 사도행전 19장 22절은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썼다는 증언은 기록장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행 20:3; 롬 15:25). 이 3개월은 주후 57년 12월부터 58년 1, 2월에 해당되는 기간이었습니다.

III. 말씀과 해석

로마서는 다음 세 구조가 있습니다.

1. 인사와 문안(롬 1:1-7)
2. 로마 교회에 감사와 방문할 동기와 목적(롬 1:8-15)
3. 본론(롬 1:18-15:13)
 - (1) 교리편(롬 1:18-11:36)이고,
 - (2) 실천편(롬 12:1-15:13).

교리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시고 대신 인간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구원론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직설법’(Indikativ)을 사용합니다. “하려 함이라”, “받을 것이다”, “되었느니라” 등 선언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다음 ‘그러므로’(롬 12:1)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연결되는 실천편은 ‘명령법’(Imperativ)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직설법) 그러므로(접속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명령법)으로 이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기본 틀이고 서술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받는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의'(義)(로마서 1:18-3:18)

(1) 이방인의 죄(롬 1:18-32)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 1)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 우상 숭배(롬 1:18-25)
- 2) 성적 혼란과 방종,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불효, 무정, 무자비 등입니다.(롬 1:26-31)
- 3)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함(롬 1:18-21)

(2) 유대인의 죄(롬 2:1-3:18)

- 1) 남을 판단하는 일(롬 2:1-5)
- 2) 유대인 됨의 우월감(롬 2:25-29)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義)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그리고 모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2.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로마서 3:19-5:11)

(1) 하나님의 의(롬 3:19-31)

- 1)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롬 1:17)
- 2)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롬 3:22)
- 3) 의를 위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삼으심(롬 3:25)
- 4)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음(롬 3:24-25)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간과'(看過)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롬

3:25-26). 이것이 바울의 핵심인 ‘의인’(義認-justification) 사상입니다.

(2)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됨(롬 4:1-25)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구약의 대사표(大師表) (롬 4:3, 5:1-11)였습니다.

3.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롬 12:1-15:13)

(1) 그리스도인의 의무(롬 12:1-21)

신앙고백(롬 1:18-11:36)과 실천부분(롬 12:1-15:13)으로 구분되는 로마서는 ‘믿음’과 ‘은혜’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색을 가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 1)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예배’(롬 12:1-2)
- 2)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섬기는 봉사생활(롬 12:4-5),
- 3) 사도, 예언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공화를 베푸는 은사사역에 참여(롬 12:3-8)
- 4)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롬 12:10), 손님을 대접하는(롬 12:13)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그리고 국가와 이웃에 대한 의무(롬 13:1-14)를 다 하고

(3) 마지막 믿음의 때, 구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롬 13:11-14).

(4)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롬 14:1-15:13).

이렇듯 로마서의 길고도 난해한 사상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에서 집약된 구원의 절차와 과정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절차:

- 1) 모든 사람에게 내릴 하나님의 '의'(義) -심판
- 2)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침-대속-하나님 은혜
- 3)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
- 4) 이때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심 '의인'(義認)

IV. 성찰과 나눔

1. 로마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심오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스도교 사상의 집대성이며, 구원의 의미를 가장 심오하게 풀어낸 신앙의 지침입니다.

2. 로마서는 불량했던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를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로 바꾸었으며,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 개혁의 동기를 부여했으며, 20세기 대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말씀의 신학'으로 돌려놓았습니다.

3. 우리는 로마서 3장 23-26절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집약하는 중심 사상을 찾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gratia)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제물'로 삼아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치셨습니다(롬 3:24). - sola gratia(은혜로만)

(2) 그다음은 믿음(fides)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드리는 '수용'(acceptance)하는 것입니다(롬 3:25). - sola fides(오직 믿음으로)

(3) 이때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우리를 '죄 없음'으로 선언하십니다(롬 3:25).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십니다(롬 3:26).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稱義-justification)라고 합니다.

(4)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롬 3:26).

4. 그러므로 바울의 '칭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받았다” 영어로는 We are justified by faith through grace alone입니다.